윤성빈 "두고보자 3월 세계선수권"

윤성빈이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8차 스켈레톤 남자 대회 경기에서 우승, 시상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성빈은 1·2차 시기 합계 1분52초70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러시아, 1분52초76)를 0.06초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IBSF 월드컵 6차 대회 이어 8차서도 금메달

랭킹포인트는 트레티아코프에 밀려 2위 기록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25·강원도청)이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윤성빈은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18~2019 IBSF 월드컵 8차 대회에 출전했다. 1, 2차 시기에서 1분52초70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러시아)를 0.06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월드컵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월드컵 랭킹 포인트(1680)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1704)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윤성빈은 월드컵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정조준했다.

윤성빈은 "오늘 경기만 보면 마무리로 금메달을 따서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랭킹이 2위로 밀려나서 너무 아쉽다. 앞으로 채워야할 게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세계선수권이 남아 있고, 최종 목표는 세계선수권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황선홍 감독, 갈 곳 잃다…소속팀 옌볜 해체 날벼락

중국 축구 사상 세금 문제로 프로팀 해산 처음

감독도 지도자 생활을 할 정도로 한국 축구와도 연이 깊다.

중국으로 떠난 '황새' 황선홍 감독이 미아 위기에 놓였다.

시나스포츠 등 중국 미디어는 25일 "중국 갑급리그(2부리그) 소속의 옌볜 푸더가 재정난을 이유로 해체된다"고 일제히 전했다. 옌볜은 후원사로부터 약속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렸다. 밀린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서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나스포츠 뿐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1955년 창단해 6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옌볜이 중국 축구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축구 사상 세금 문제로 프로팀이 해산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지 훈련 중인 옌볜 선수들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이틀 내 옌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축구협회는 28일 막을 내리는 이적 시장을 옌볜 선수들에게만 1주 더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옌볜의 지휘봉을 잡은 황 감독은 하루아침에 무적 신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리그1 FC서울 감독직을 반납한 뒤 중국에서 재기를 꾀하려 했으나 상황이 제대로 꼬였다.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의 다른 팀들도 이미 구성을 마쳐 마땅히 갈 곳도 없다.

옌볜은 1955년 창단, 64년 간 중국 축구계를 지켰다. 김승대, 하태균 등이 거쳤고 이임생 수원 삼성

뉴시스

양희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껑충…16계단 오른 13위

아리야 쭈타누깐 1위 · 박성현 2위 지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4승째를 거둔 양희영(30)이 세계랭킹에서도 재미를 봤다.

2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3위를 기록했다.

평균 4.03점으로 지난주 대비 16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렸다. 상위 30명 중 가장 상승폭이 크다.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이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양희영은 지난 24일 태국 촌부리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6576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호주동포 이민지(22)의 끈질길 추격을 1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투어 통산 4승 중 3승을 이 대회에서 따내며 기분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아리야 쭈타누깐(태국)이 평균 6.49점으로 1위를 지켰다. '남달라' 박성현(26·솔레어)이 평균 5.66점으로 2위에 올랐다.

혼다 LPGA 타일랜드 준우승자인 이민지가 평균 5.36점을 얻어 4계단 오른 3위를 차지했다.

아직 시즌을 시작하지 않은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1계단 하락한 5위다.

뉴시스

'2019시즌 KIA 타이거즈 성인·어린이 회원 모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6일부터 2019시즌 멤버십(어린이·성인) 회원을 모집한다.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회원들에게는 타이거즈숍 이용 시 상품가 10% 할인과 정규시즌 중 구단 행사 참가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회원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가입비는 7만5000원이다. 어린이 회원들에게는 회원 카드와 함께 유니폼, 모자, 스노볼, 키링, 인형 등이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회원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고 가입비는 8만5000원이다. 성인회원들에게는 회원 카드와 함께 기념품으로 2019시즌 팬북과 유니폼, 타이거즈 온라인숍 7만포인트(7만원 상당), 머플러, 키링, 보조배터리, 달력을 제공한다.

한편, KIA는 2019시즌 홈페이지 'T클럽' 회원도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300명이며 가입비는 2만원이다.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팬북과 호걸이 인형을 가입 선물로 증정한다. T클럽은 1년 회원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축구협회와 협력"

이근호 프로축구선수협회장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선수협은 26일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이근호(울산)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염기훈(수원) 박주호(울산) 윤석영(서울) 조수혁(울산) 등 현역 선수들이 이사진에 포함되어있다. 프로 경험이 있는 김한섭 이사와 진창수 이사 등도 참여했다.

선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2018년 사업보고 및 향후 활동방향, 사업계획도 논의했다. 또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연간 4회 이사회를 개최해 더 많은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근호 회장은 "전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은 각 나라의 선수협을 통해 축구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선수협을 이끄는 이사들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 축구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